

조선후기 별서정원의 조영 및 원림 공간적 특성

- 밀양 퇴로리 서고정사를 중심으로 -

이현우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별서는 관직을 퇴한 후 휴양 혹은 빈객의 장소로 시작하여, 은거 및 거주의 장소로 쓰였던 일종의 별장으로(이정호, 2007: 216), 단순히 현실도피적 염세관이나 사치관의 산물이 아닌 자연귀의와 은일사상을 기저로 이루어진 독특한 정원문화이자(이재근, 1992: 2), 조영 당시의 사회배경에 영향을 받는 시대적 산물이기도 하다(김홍렬, 2011: 93). 특히 별서는 외부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보이는 조영물로서, 당시 시대사조는 물론 조영자의 가치관이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별서정원과 관련된 연구(이재근, 1992; 김용기 등, 1994; 양병이 등, 2003; 차경선, 2005; 김현미, 2011; 이광만, 2012; 최지영, 2012; 권지영, 2013)는 다수 수행되었고, 밀양지역 여주이씨의 또 다른 별서인 월연정(김수진 등, 2008; 김태수, 2012; 전해정, 2011; 박재범, 2011)과 금시당(엄태건, 2011)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퇴로리 정원에 주목한 조경학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퇴로리 정원은 조선말기의 전환기적 양상을 주목한 이원호(2005)의 연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대표적 고정원이라 할 만하다. 다만 퇴로리 정원 조영과 관련해 권순강(2004)이 정자, 재실, 서당 등을 중심으로 '밀양 여주이씨의 조영활동'을 조명한 건축학적 연구만이 확인될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별서정원에 대한 연구는 소재원과 명옥헌, 부용동정원, 독락당, 초간정, 다산초당, 청암정, 서석지원, 남간정사, 성락원 등과 같이 대부분 '名園'만을 대상으로 이뤄짐으로써, 연구의 깊이는 심화되었지만, 새로운 정원유적 및 유구의 발굴을 통한 연구영역의 지면 확대에는 소홀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밀양 퇴로리에 소재한 서고정사의 '입지·공간 및 시설 특성·식재양상 등'의 조영 및 원림 공간적 특성을 구명함으로써, 한국전통원으로서 별서정원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경남 밀양시 북북면 퇴로리의 驪州李氏 自濡軒公派 李萬白(1656~1716)의 7대손 恒齋 李翊九(1838~1912)가

1890년 무릉리에서 移居하며 건립한 종택인 退老里 李氏古家와 지근거리에 조영된 여주이씨의 별서 서고정사이며, 현재 항재공파중에서 수호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해 이뤄졌다. 문헌조사는 항재의 西阜雜詠, 巖棲文集 卷之二十二의 西阜精舍記, 이익성(1977) 省軒集, 自濡軒文集 序, 이우성(2004) 退老里誌, 밀양시(<http://miryang.kccf.or.kr>) 및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고찰하였다. 현지조사는 2013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총 3차례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건물 및 정원의 실측은 실(絲)을 이용한 그리드 실측과 함께 광과측량기를 활용했으며, 대지 내 수목위치와 배치 또한 광과측량기로써 측량하였다. 사진은 건물과 정원 구성요소별 입면과 구조 및 배치형태를 촬영했으며, 원경과 중경은 크레인을 이용 촬영되었고, 이후 Auto CAD를 이용해 도면화하였다. 내원은 관속식물을 중심으로 대목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황조사는 수치지형도와 Daum 위성지도를 참조해 시설 배치를 파악했으며,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수고와 흉고직경을 측정해 도표화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공간구성

경남 문화재자료 제477호인 서고정사는 일반적인 정사의 입지형태로 수려한 산세나 가경을 조망키 위한 山亭 혹은 물가의 溪亭의 형태와는 차별화된 공간성을 띤다. 종택으로부터 340m 가량 이격된 서고정사의 포치는 종택과의 일체감을 유지하면서도 은일을 실현코자 했던 작정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즉, 재택이 있는 씨족마을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정거리는 확보함으로써, 지극히 자신만의 별서정원으로서의 작정동기가 적절히 교용된 결과물이다. 남동향으로 앉은 정당 항재는 인공적으로 조영한 못, 즉 수공간을 적극적으로 완상기에 최적화된 좌향이다. 진입부에서 조망했을 때 우측에 있는 별도의 관리지원 공간인 고직사는 조선후기의 전환기적 양상을 극명히 보여주는 특성이며, 정사로의 진입은 고직사를 거쳐 항재의 측면으로 유도된 협문을 통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2. 지당의 연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정원구성요소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정원이 단순한 위요공간 내지 생산환경인 경우에는 고인 물을 뽑아내는 배수나 필요한 물을 모아두는 급수의 목적이 강하지만, 悅樂 장소인 경우에는 관상의 목적이 더 강하다. 정원의 수경요소 중 가장 대표적은 물을 모아 고이게 둔 못, 즉 池塘이다. 서고정사의 활수당은 방지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서암과의 적극적인 배치를 위해 한쪽 가락이 전체되었으며, 중도를 갖는데 圓型이 아닌 方島의 형태여서 또한 주목된다. 정동오(1978: 1-16)에 따르면 정원 내 지당의 전형적인 형태가 方池圓島型임을 감안할 때, 활수당의 方池方島型은 매우 독특한 구성임에 틀림없다. 이렇듯 方池方島의 형태를 취한 국내 정원의 지당은 '선교장 활래정, 보길도 세연정, 무기연당 일명 菊潭' 정도가 알려졌을 뿐,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恒齋는 인공못인 活水塘과의 관계를 적극 고려한 포치로, 이렇듯 수공간을 중요시함은 우리나라의 일반적 별서정원의 조원기법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수공간 연출기법이 방형의 못 형태를 취한 것은 일반적 별서정원과 동일하지만, 배면으로부터 전면을 향해 3단 구성의 의도적 낙차를 활용한 수공간의 단계적 물의 이동은 차별화된 시각구성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단계적 물의 이동을 통한 의도적 수공간 연출기법은 밀양지역만의 지역적 특성으로, 일반적 별서정원의 특징보다 다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서고정사의 단계적인 물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면, 향재 좌측의 '우물[枕雨泉]'에서 향재와 한서암 간의 석가산 아래 '果育泉'으로 이동 후, 비로소 수경요소로서 정점을 찍는 '活水塘'으로 연계된 3단 구성의 수공간 연출기법을 쓰고 있다. 또한 활수당의 중도는 그 위 공간이 식재공간이기보다, 석가산 조영에 목적을 둔 다분히 관념적 공간이란 특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果育泉 배면에는 三神山[봉래·영주·방장]이 조성됨으로써 석가산을 강조한 공간특성을 띄며, 다만 아쉬운 점은 과육천이나 활수당의 일부 호안석축을 유지관리의 편의도모를 위해 흙물스러운 시멘트로 발라 처리함으로써, 전통 석축양식으로의 귀환이 시급히 요망된다.

3. 조경수목

향재 주변에는 매화, 영산홍, 왜철쭉, 파초, 맥문동 등이 자라며, 한서암과 활수당 주변에는 비자나무, 백송, 삼나무, 주목, 편백, 섬잣나무 등 비교적 다양한 침엽목이 식재되었다. 특히 활수당 주변의 백송과 섬잣나무는 대경목으로 私家庭園에선 찾기 힘든 대규모이다. 이밖에 단풍나무, 눈향나무, 쥐똥나무, 팔손이 등도 보이며, 枕雨泉 주변에는 배롱나무, 꽃아그베나무, 마삭줄 등이 자란다. 또한 원형적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활수당에는

연꽃 대신 수련이 우점하고 있다. 서고정사는 20세기 초반 외국에서 도입된 풍치 및 관상용 수종을 식재했는데, 백송, 편백, 삼나무, 금송 등이 그 예이다. 더불어 비자나무, 주목, 섬잣나무 등의 자생 침엽수도 풍치용으로 식재된 점은 조선전기나 중기의 정원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조선후기의 전환기적 식재양상으로 파악된다. 당시 국내에선 보기 드문 거대 외래수종을 들여와 자신의 정원에 심었던 조영자는 외국문물과 문화를 쉽게 받아들인 진보적 성향이었을 것이다. 이밖에도 외원 또한 기존 자연식생을 활용하고, 여기에 일부 조경수를 보완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과 밖 외원에서 은행나무, 소나무 등 대경목이 쉽게 발견된다. 여기서 유추 가능한 특이점은 여주이씨가 지근거리에 조영한 月淵亭이나 今是堂에서도 발견됐던 백송이 서고정사에서도 어김없이 발견된 점으로, 이는 주목할 만한 밀양지역 별서정원만의 특성이다.

4. 시각구성

서고정사는 내원을 울타리로 위요시킴으로써 다분히 폐쇄적 향적 조망 특성을 띄며, 마을 깊숙한 곳 평지 상에 이뤄진 구성으로 당시의 자연지형에 최대한 순응한 조영특성을 띤다. 향재에서의 구조망 초점은 활수당 즉, 수공간에 집중되었다. 특히 활수당의 가락을 剪除해 방지의 모서리를 파내어 한서암을 향재와 직각으로 배치함으로써, 내부지향적 조망을 추구함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내, 외원을 아우른 각 경물에 의미를 부여해 이름을 붙인 행위으로써 이를 '西臯雜詠十七詠'으로 탄생시켰고, 이는 寒樓庵 처마 밑 계관편액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별서인 소쇄원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하서 김인후가 소쇄원의 경물의 집경을 통한 '瀟灑園四十八詠'을 완성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서고정사의 조영자 향재 이익구는 '西臯雜詠十七詠'을 완성함으로써 집경을 통한 경물에 이름 붙이기를 했는데, 이는 당시 별서경영자의 정원경영 특성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IV. 결론

밀양 퇴로리 서고정사의 조영 및 원림 공간적 특성을 고찰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향재 이익구의 서고정사는 퇴로리 깊숙한 곳에 터 잡음으로써 지극히 개인적 공간으로서의 입지 특성을 띤다. 일반적 정사의 입지형태로서 山亭 혹은 溪亭의 형태와는 차별화된 공간성을 띄는 바, 종택으로부터 340m 가량 떨어져 종택과 일체감은 유지하면서도 은일을 실현코자 했던 조영자의 의도가 공간에 용해된 조영물이다. 남동향으로 앉은 향재는 정원구성요소의 핵심인 池塘으로의 시선 유도과 적극적 완상을 위한 최적화된 좌향임을 파악했다. 활수당의 수공간 연출기법은

방향의 못 형태를 취한 부분에선 일반적 별서정원과 동일하지만, 배면에서 전면을 향해 3단 구성의 의도적 낙차를 활용한 단계적 물의 이동 그리고 方池方圖의 지당 구성은 기존 별서정원에선 찾기 힘든 구성적 조합으로 매우 특징적이다. 또한 활수당의 中島는 식재공간이기보다, 석가산이라는 다분히 관념적, 상징적인 특성이 부각된다. 이는 果育泉 배면에 형상화한 3개의 석가산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더욱 흥미로운 연출이다. 서고정사는 자체의 玩賞뿐 아니라, 특별한 시각구성 연출을 목표로 외래수종을 도입한 점에서 기존 별서정원과는 차별화된다. 특히 풍치용으로 식재된 비자나무, 주목, 섬잣나무 등의 자생 침엽수와 백송, 삼나무, 편백 등의 외래 조경수는 조선후기라는 전환기적 시기의 식재 양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별서정원에 설정된 集景인 '西阜雜詠十七詠'에서 감지되듯 일과 밖 境外까지도 정원 영역으로 확장시켜 해석하는 등 園林의 風趣가 강하게 드러남이 발견된다. 이 같은 특성을 종합할 때 밀양 퇴로리 소재 서고정사는 입지 및 공간구성 등에 있어선 조선조 별서정원의 유품을 공유하지만, 수공간과 석가산의 조성 및 조경식물의 활용 측면에선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정원유적으로서, 더 이상의 훼손과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및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강(2004) 밀양 여주이씨 조영활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영(2013) 시문을 통해 본 호남지방 별서정원의 명승적 가치.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김태수, 심우경(2008) 이태(1483~1536) 별서 경영과 이상향.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2): 18-30.
- 김용기, 홍광표, 이상윤, 심장진, 양달섭(1994) 조선시대 별서정원의 수경연출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2(1): 43-56.
- 김태수(2009) 조선시대 은거선비들의 산수경영과 이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미(2011) 조선시대 별서정원 소재원의 意境 양상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렬(2011) 한국 별서정원 설계의 기호학적 해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범(2011) 16세기 별서건축 밀양 월연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병이, 박은영, 박휘(2003) 선비문화가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1(1): 9-20.
- 엄태건(2011) 밀양 금시당12경의 문화경관 해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만(2012) 별서조경에 활용된 수목의 식재유형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우성(1986) 省軒李炳憲先生年譜.
- 이우성(2004) 退老里誌.
- 이원호(2005)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에 조성된 한국정원 설계요소의 전환기적 양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李翼成(1977) 省軒集 解題(麗州世稿 省軒先生文集 附 一亭集). 密陽: 正進文化社.
- 이재근(1992)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호(2007) 고려후기 별서의 조성과 기능. 한국사학보 27: 215-242.
- 전혜정(2011) 월연정 전통정원의 보전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오(1978) 한국정원(韓國庭園)의 지당형태(池塘形態) 및 구성(構成)에 대하여. 한국조경학회지 6(1): 1-16.
- 차경선(2005) 서울시 별서정원 유적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2012) 안동화회마을 별서정원의 명승적 가치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ttp://www.miryang.go.kr>
- <http://db.itkc.or.kr>